

출 장 복 명 서

2014. 5.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김 태 환 본 부 장
김 은 정 책임연구원
이 수 암 연 구 원

I. 출장의 개요

1. 출장목적

-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강소도시 무주를 실현할 성장동력 발굴과 도시관리 방안 등 국외 선진도시를 답사·벤치마킹하여 내실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 기능이 강화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활용
- 무주군의 주요 잠재자원인 태권도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소림사의 주요 프로그램 및 문화수익사업을 조사하여 선진사례를 접목
- 슬로시티로서의 가오춘의 자연·농촌환경 등의 사례조사와 현지 공무원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심도있는 조사 실시 및 자료 수집
- 다수의 공공건축물을 무주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공공디자인 특성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 도출

2. 출장국 및 방문도시

- 중국
 - 상하이[Shanghai, 上海(상해)]
 - 난징[Nanjing, 南京(남경)]
 - 가오춘[Gaochun, 高淳(고순)]
 - 덩펑[Dengfeng, 登封(등봉)]
 - 텐진[Tianjin, 天津(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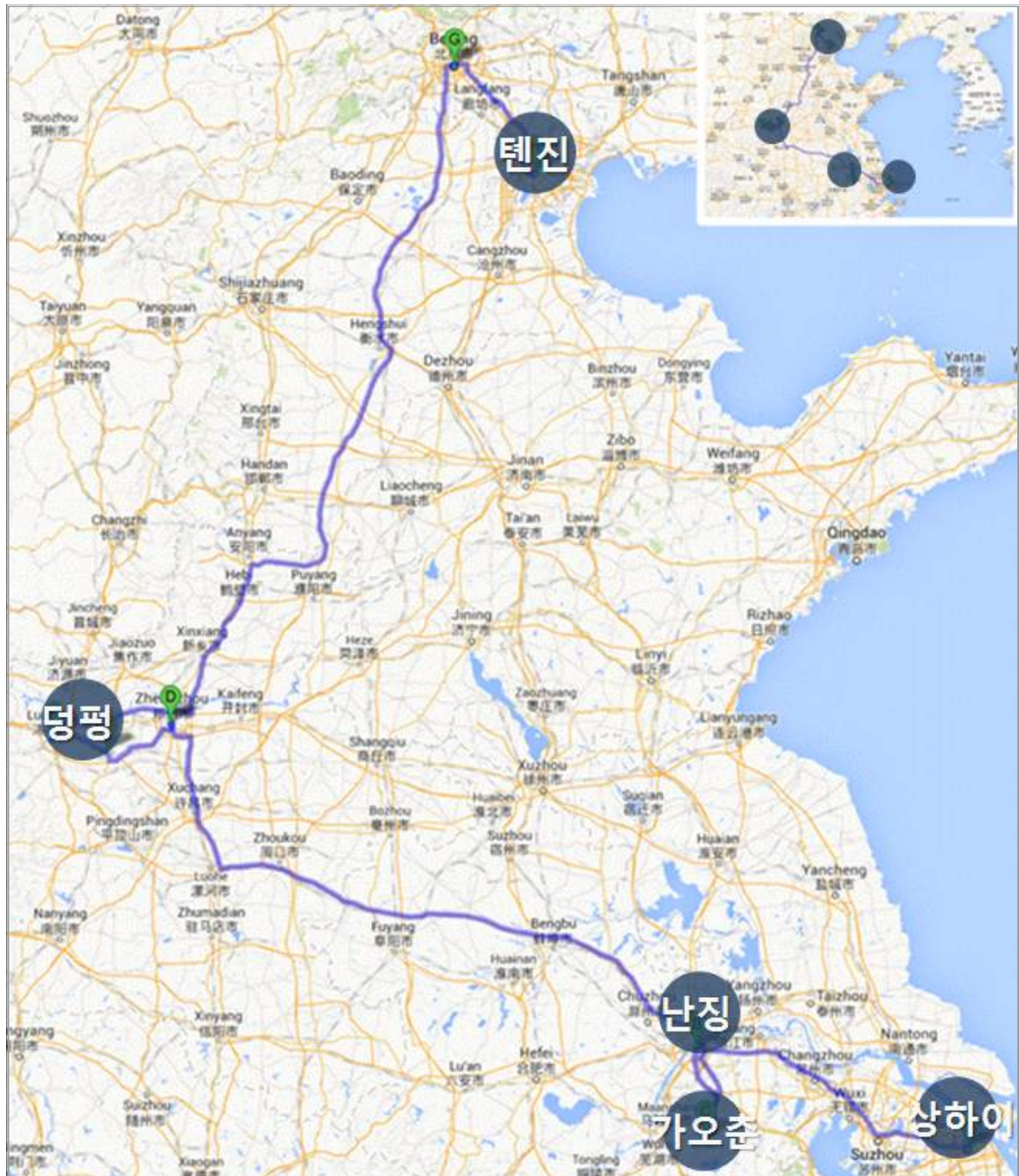
3. 출장기간

- 2014. 5. 2(금)~5. 9(금) / 7박8일

4. 출장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2(금)	인천	상하이		출발		
5.3(토)		상하이	현지조사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상하이의 도시브랜드 마케팅 현지조사		
5.4(일)	상하이	난징	이동(고속철도)			
		난징	현지조사	역사문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고도(古都) 난징시의 도시정책 조사		
5.5(월)	난징	가오춘	이동(렌트카)			
		가오춘	현지조사	중국 최초의 슬로시티 가오춘 현장조사	Tourism Bureau of Gaochun County Hongtao Wang Deputy Director	
5.6(화)	난징	정저우	이동(항공)			
	정저우	덩핑	이동(렌트카)			
5.6(화)		소림사	소림사 문화커뮤니티 센터	소림사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수익사업 조사		
5.7(수)	정저우	베이징	이동(항공)			
5.8(목)	베이징	톈진	이동(고속철도)			
		톈진	현지조사	중국 국가여유국에서 11곳을 A4 관광지로 선정한 톈진시의 국제수준 관광 인프라 현황 조사		
5.9(금)	베이징	인천	저녁 이동(항공)			

<그림 1> 방문도시 위치



II. 출장조사 수행 내용

1. 상하이[Shanghai, 上海(상하이)]

□ 지역특성

- 중국 최대의 경제 중심 도시, 4대 직할시 중 하나
 - 중국의 4대 직할시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공업기지이며, 항구와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의 중심지
 - 인구는 23,019,000명(2010년 기준), 면적은 약 6000km²이며 행정구역은 16개 구와 1개 현으로 이루어짐
- 현대화와 국제화를 겸비한 대도시
 - 화동[華東] 지역에서 철도와 민항기 교통의 중추를 담당하는 도시이며, 전국 최대의 항구이자 세계 10대 항구의 하나임
 - 푸둥신구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현대화와 국제화를 겸비한 대도시로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이며, 주요 수출입 국경출입구임
 - 양푸대교[楊浦大橋]와 동광명주타[東方明珠塔], 상하이의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대극장 등 대형 현대화 건축물이 도시의 멋을 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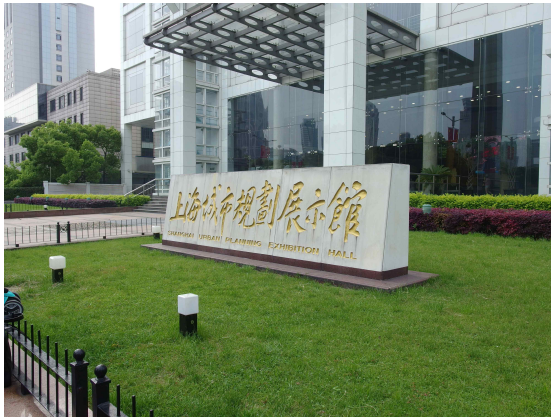
<그림 2> 상하이시 야경 및 도심내부 모습



□ 주요 조사내용

-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모습까지 보여주는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 [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 上海城市規劃展示館]'
 -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은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모습까지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사진으로는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상하이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전시장이 있음

<그림 3> 상하이 도시계획관 입구 및 1층 로비



- 층마다 다른 테마별 전시를 하고 있음
 - 1층은 '상하이의 아침관'으로 동방명주와 APEC 회의센터 등 상해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전시
 - 2층은 흑백 사진을 통해 상해의 과거를 보는 곳이며,
 - 3층은 마스터플랜 제1홀로 상하이 시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농구장 크기의 디오라마(실제 지형에 가깝도록 축소해 놓은 모형물)가 자리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계획 모형임
 - 4층은 마스터플랜 제2홀로 상하이의 미래발전 전문 섹션이 전시돼 있고, 5층은 인민광장 주변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음

<그림 4> 상하이 도시계획관 층별 전시시설



○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 1919년 상하이에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로, 1993년과 2002년 대대적인 복원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음
- 항일투쟁시기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물과 임시정부 주요인사들의 사진, 당시의 태극기,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 각 부처 장관들의 집무실, 임시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 등을 둘러볼 수 있음

○ 상하이 예술거리 '타이강루(泰康路)'

- 타이강루는 시장 골목처럼 좁은 거리에 각종 공예품이나 예술사진, 회화작품, 설치미술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예술의 거리라고 불리고 있음
-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이색적인 카페와 전통 공예점 등이 자리하고 있음
- 상하이의 관광특구로 관리되기 때문에 상하이의 다른 지역에 비해 거리가 매우 깨끗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예술의 거리라기보다는 예술상품의 거리로 상업적인 모습이 강함

<그림 5>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타이강루 예술거리



2. 난징[Nanjing, 南京(남경)]

□ 지역특성

○ 명나라 시대의 수도

- 난징은 역사적으로 명나라 시대 대국의 수도로써 중국 쇠락에 아픈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도시로 면적은 6,598km², 인구는 약 820만 명임

○ 화중(華中) 지방의 학술·문화의 중심지

- 중국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로 난징대학[南京大學]을 비롯한 고등 교육기관 외에 과학원분원(科學院分院) 등 연구기관과 쓰진산천문대·난징박물관·도서관 등이 있음
- 난징은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쑨원[孫文]의 묘소인 중산릉(中山陵), 명나라 홍무제(洪武帝)의 효릉(孝陵) 등 명승고적이 풍부하기도 유명

○ 장쑤성 최대의 공업도시

- 난징은 원래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과거 약 20년간에 전통적인 견직물공업 외에, 화학·기계·철강·식품 등 공업이 크게 일어나, 장쑤성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

<그림 6> 난징시 자전거 인프라 현황



□ 주요 조사내용

○ 난징의 주요 역사문화 자원

- 난징은 육조문화(六朝文化), 명문화(明文化), 민국문화(民國文化), 혁명문화(革命文化) 등이 관광지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음
- 명고궁(明故宮) 유적지, 명효릉(明孝陵) 및 명조공신(明朝功臣)의 무덤, 성곽 등 명나라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명대 건축의 웅장함과 기백을 보여주며, 명조 개국황제 주원장(朱元璋)의 묘인 명효릉(明孝陵) 유적지는 2003년 세계문화유산에 선정

<그림 7> 난징시 주요 관광자원



- 명효릉(明孝陵)은 명나라(기원 1368-1644년) 개국황제 주원장 본인의 능침인 명효릉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고대 제왕 능묘군의 하나
- 중산릉 (中山陵)은 난징의 동쪽, 자금산(紫金山) 남쪽 기슭에 위치한 손중산(孫中山) 묻혀 있는 곳으로 흔히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孫文)의 호인 중산(中山)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은 곳으로, 위대한 민주혁

명의 선 두자 손중산이 이 곳에 잠들어 있으며, 중산릉은 그로써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지위를 갖게 됨

<그림 8> 명효릉 및 중산릉



- 부자묘는 공자(孔子)를 모시는 사당으로 1034년에 세워졌으나 건물들 대부분이 파괴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청대에 재건한 것임
- 부자묘 주변에는 변화가가 옛 모습 그대로 조성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은 부자묘보다는 오래된 정통 건물에 들어선 음식점과 상점이 즐비한 옛 풍경의 변화가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파란 벽돌 기와와 회랑, 꽃 모양의 창 등 명·청대의 품격 있는 건물들이 잘 어우러져 운치를 더함

<그림 9> 부자묘 및 주변 상업지역



3. 가오춘[Gaochun, 高淳(고순)]

□ 지역특성

- 중국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에 있는 현(縣)
 - 장쑤 성 난징 시의 남쪽에 위치한 행정 구역으로 넓이는 801km²이고,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420,000명임
- 국가 생태계 시범구역
 - 가오춘은 중국 장강(長江)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촌으로 30% 산, 20% 물, 50% 밭이라는 생태계의 황금비율을 자랑하고 있음
 - 국가 생태계 시범구역으로 공업 위주의 기업이 한 곳도 없으며 에너지 소비가 높은 항목들은 무조건 제한하며 생태농업을 위해 국가급 농업 우수기업 2개, 유기농·녹색상품 44개, 각종 농산품 브랜드 200여개를 보유
 - 이 고장의 수입원은 생태농업과 생태관광에 의존하고 있으며 30여ha의 죽원림, 40여ha의 유기농 녹차원, 50여ha의 과수원 등 대규모의 경제농장이 형성돼 있음

<그림 10> 가오춘 슬로시티 안내판



□ 주요 조사내용

- 중국 최초 슬로시티 가오쑤ن 야시(Yaxi)
 - 중국 최초로 슬로시티에 선정된 가오쑤(高淳)의 Yaxi 빌리지는 인구 2만 명의 농촌마을로, 중국의 여러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중국 4대 고도(古都) 중 하나인 인구 800만 명의 난징(南京)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 위치

<그림 11> 가오쑤 치타슬로우 지도



- 가오춘의 대표적인 여행 관광지는 농가촌 여행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수공예품으로는 천으로 만든 신과 도자기, 죽공예품 등이 있음
- 대표적인 축제로는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는 금꽃 관광절과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리는 대지예술제가 유명하며, 다도체험도 가능
- 대표적인 식품은 삭힌 두부·생두부·튀긴 두부 등 콩 제품, 해바라기씨, 초계란, 향오리 등이 있고, 요리로는 닭고기로 만든 탕, 연근볶음과 연근줄기볶음, 향아리에 절인 야채 등이 있음

<그림 12> 가오춘 차밭



<그림 13> 산책로



<그림 14> 슬로푸드장터 모습



<그림 15> 로컬푸드 판매장



<그림 16> 농촌민박 모습



<그림 17> 평화로운 주민의 모습



<그림 18> Yaxi 빌리지 거리



<그림 19> 근대문화유산 건물



- 치타슬로 지정 후 가구당 소득이 100만원 이상 증가
- 가오춘 치타슬로 담당자 인터뷰에 의하면 가구당 소득이 치타슬로 지정 전보다 100만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졌음

<그림 20> 현지기관 방문 및 가오춘 슬로시티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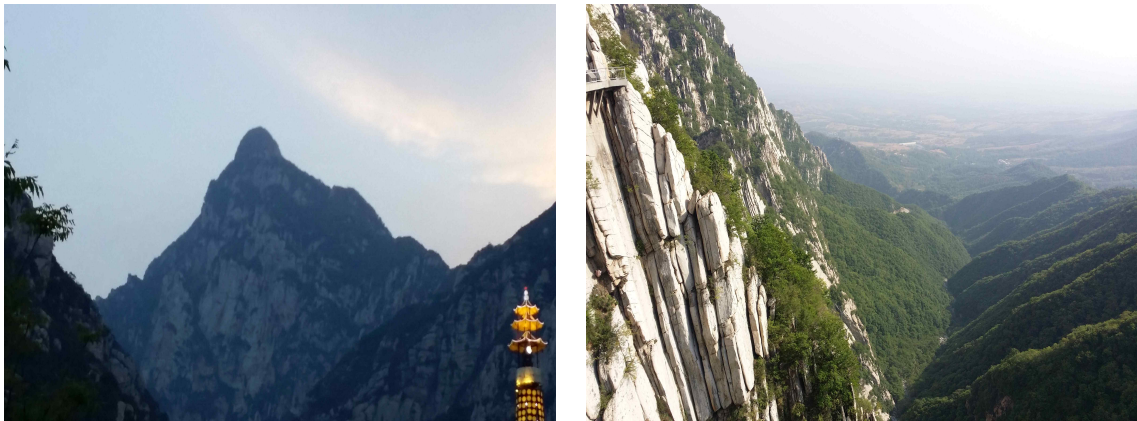


4. 덩펑[Dengfeng, 登封(등봉)]

□ 지역특성

- 중국의 5대 약산(岳山, 명산. 과거 중국은 높고 큰 산을 '약'이라 불렀음)의 하나로 손꼽히는 쑹산(嵩山) 산기슭에 자리잡음
 - 덩펑(登封)시는 달마의 수행지이자 중국 무술의 요람인 소림사(少林寺)로 유명세를 타며 주요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도시로 면적은 1,220km²이고 인구 67만 명임(2010)
-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림무술의 발원지 소림사(少林寺)를 비롯한 문화유적 보유
 - 경내의 관광지로는 국가급풍경명승구 및 국가급삼림공원인 중악(中岳) 쑹산(嵩山, 승산)과 국가급문물보호단위 13개소, 천하제일명찰 소림사(少林寺), 도교사원 중악묘(中岳廟), 송양서원(嵩陽書院) 등이 있다. 행정구획은 3개 가도, 8개 진, 5개 향으로 이루어짐

<그림 21> 쑹산(嵩山)의 모습



□ 주요 조사내용

○ 소림사(少林寺)

- 소림사의 존재는 무협지나 일반 도서에서만 알려진 절로써 실제 1980년대 초에는 10여명의 승려만 있던 곳이었으나, 1980년대 홍콩에서 소림사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면서 그 존재가 확산되기 시작
- 소림사는 선종의 본산으로 불교성지의 하나로써 종교순례의 관광가치와 천하무예 출소림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포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중원에 위치한 중국 오대성산의 하나로 오랜 역사의 세월 속에 많은 문화재 등이 소재하며 좋은 경관과 역사성과 종교와 무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으로써의 집중력을 가진 곳
- 오늘날의 소림사는 한마디로 말해 거대한 유한공사라 할 수 있으며 주된 수입원은 중국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펼치는 무술 공연, 무술학교 설립을 통한 수입, 소림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약 비방의 판매, 승려들이 이용하는 선식을 채식주의자들에게 공급하는 식품 사업 등이 그 배경임

<그림 22> 소림사 입구



- 소림사 주식회사는 소림사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 소림사 브랜드를 이용해 각종 문화 수익사업을 담당
- 소림사는 이 회사뿐 아니라 식품·제약·브랜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1998년 무승단(武僧團)의 무술공연을 담당하는 '소림사 실업발전 주식회사'를 처음 발족
- 채식주의자를 겨냥해서 소림사 선식을 제품화하는 식품회사, 선차(禪茶)회사, 소림약국을 잇따라 세웠고 '소림사'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브랜드 관리 회사도 별도로 운영

<그림 23> 소림사 주요시설



5. 텐진[Tianjin, 天津(천진)]

□ 지역특성

○ 북방 최대의 무역항구

- 화북지방의 관문인 천진은 북경, 상해, 중경과 함께 중국 4대 직할시 중의 하나이자, 북방 최대의 무역항구 도시임
- 천진이라는 이름은 천자(天子)가 이곳의 항구로 들어왔다 해서 지어진 것으로 전해짐
- 총 면적은 11,919km²이며, 인구는 952.6만 명인데 그 중 시내 중심지역의 인구는 369만 명임

<그림 24> 텐진시 도시현황



-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이며 역사·문화로 유명
 - 중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제일의 인공항구를 자랑하며, 역사·문화로도 유명한 도시임. 주은래의 모교인 남개대학이 있고 천진역사박물관, 자연박물관, 예술박물관 등 수많은 진귀한 보물과 유물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많이 있음
 - 중국의 발달된 면모를 체험할 수 있는 산업도시로 수나라 대운하 개통 때부터 천진은 발전하기 시작
 - 17세기 이래로 경제·사회 방면에서 그 규모가 끊임없이 확장되었고 1900년 대 초 잠시 외세에 의해 자치권을 점령당해 이러한 외세의 영향은 아직도 유럽식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천진은 비록 관광도시이기 보다는 경제도시로 유명하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요소를 지니고 있는 북경과 바다를 이어주는 관문도시임

<그림 25> 빈하이 신구 모습



□ 주요 조사내용

-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산업에 활용
 - 19세기말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은 천진은 근대 유럽풍의 건축물 등 식민시대의 유물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존하여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관광산업에 활용
- 총 11곳의 국제수준의 AAAA급 관광지 확보
 - 텐진시의 A4급 관광지구는 홍보, 교통, 환경, 위생, 경영관리, 기능성, 여행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평가되며 향후 관리 및 홍보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됨
 - 현재 천진시의 A4급 관광지구로 선정된 곳은 황야관 장성, 와이탄 공원, 열대식물 관광원, 수상공원, 천탑, 판산, 독락사 등이 있음

<그림 26> 텐진시 주요 관광자원



Ⅲ. 시사점

-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보전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 무주군은 5도(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지역과 연접해 있으나 타시·군과 영향력을 주고받는 면소재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연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특화기능을 포함한 지역개발 도모
 - 조선시대 정감록에 수록된 십승지 중 하나로 명례궁을 비롯한 역사문화유산이 소재지내 집중하여 입지해 있어, 이를 복원 및 연계하여 무주지역의 대표적 역사자산으로 계승 및 활용 필요
 - 무풍면은 무주군지역내에서 가장 많은 역사관련 장소, 건축물, 시설, 이야기 거리 등 자원이 분포된 곳으로 4도의 문화가 중첩된 곳임
 - 이에 4도 연계 거점지역으로서의 지역행복생활권 형성과 무풍면소재지의 특화방향 모색을 위해 역사문화자산의 활용 도모
 - 명례궁 재현 및 활용
 - 구한말 민병석이 명성황후를 위해 건립한 궁실로서 현재 멸실 상태인 것을 재현
 - 재현된 한옥을 전통숙박 및 음식체험, 한방의료시설 등으로 활용
 - 무주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사택과 사무실의 재생
 - 1925년에 건축된 근대문화유산자료로서 현재 일부 멸실 및 방치상태에 있어 훼손된 부분의 재생 및 주변환경 정비
 - 기타 소재지내의 돌담, 근대화이전 건축물 등의 정비
 - 명례궁 및 엽연초생산조합 건물 사이에 위치한 돌담, 고가 등 정비
 - 무풍면소재지 내 역사자산을 연계하는 무풍역사길 조성
 - 명례궁, 백산서원,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명당박물관, 무풍면사무소 비석군 등을 연계하는 보행로 조성

□ 무주 슬로시티 조성을 통한 농촌브랜드 구축

- 슬로시티(slowcity)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살리기 운동으로, 무주군에는 다수의 전통적 농촌마을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남면이 현재 전북형 슬로시티로 추진 중임
- 부남면이 보다 체계적인 슬로시티 추진과 지역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함
- 부남면 슬로시티는 지역적 특성과 국제슬로시티의 운동방향을 고려하여 콘텐츠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발전방향 제시
 -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슬로푸드 상품 발굴,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 슬로시티 운동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표 2〉 무주 국제슬로시티 발전전략

부문		세부프로그램
콘텐츠 측면	슬로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산책코스에 슬로투어로드 기능 보완 • 극락사, 백촌사 등 문화자원 연계 • 농촌체험형 투어로드 개발
	슬로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농약 재배 시스템 구축 • 슬로푸드장터 운영 • 재래된장, 어죽 등 슬로푸드 개발 및 상품화
	슬로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민박 B&B(Bed & Breakfast) 프로그램 • 액막이 놀이 및 강변축제 활용 • 직물공예 체험
제도적 측면	슬로시티 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시티 경관디자인 사업 •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 주민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
	치타슬로 선정을 위한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슬로시티 계획 • 슬로시티 조례 제정

<그림 27> 무주 국제슬로시티 조성(안)



□ 태권도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

-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를 교류하고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로 무주군의 가치 창조의 장 구축
- 태권도 특구지정
 -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원과 더불어 주변지역을 태권도 특구로 지정하여 태권도도시로서의 기능과 관광·문화·산업기능이 융복합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
- 태권도 자연테마공원 조성(태권도 상징물 등 포함)
 -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예술작품과 함께 하는 야간 산책길을 조성하여 가족 및 연인의 집객 유도
- 태권도 문화거리 간판정비
 - 설천면 버스터미널 일원 간판개선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 태권도 테마 공간 및 시설 디자인
 - 태권도를 주제로 '문화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거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전개함
- 태권도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 태권상징 아이템인 무용총 벽화, 태권, 마루치·아라치, 로봇태권V 등 태권상징 벽화 및 조형물 설치
- 라제통문 휴게소 태권도 상설 공연장 조성
 - 태권도원 방문객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여 저녁에 즐길 수 있는 필수 관람코스로 육성
 - 태권도 시범단의 특화된 전문공연을 상설화(주·야간)하고 무주 태권도원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코스를 개발

□ 지속가능한 공공건축 디자인 관광도시 조성

- 소도시 도시디자인 모델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건축, 공원 등 조경, 교량 등 기반시설과 담장 등 옥외시설물설치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추후 민간부문에 까지 디자인개념과 철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
- 현재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주택, 상가, 공장 등의 건축디자인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재료, 규모, 형태 등에서 모범이 되는 공공부문에서의 시범사업이 요구됨
- 무주는 유명 건축가(정기용)에 의한 공공건축의 지명도가 높은 바, 공공건축과 디자인수준 제고를 위한 거점 역할 가능
- 정기용 메모리얼 랩 조성
 - 무주군내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의 도면, 모형, 사진 등 전시
 - 수준 높은 공공건축의 지속적 수행과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주민, 실무자 등)
 - 공공건축 디자인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생태건축 연구
- 지역 공공건축 및 디자인센터 운영
 - 공공건축 및 디자인을 주관 행정기관으로 무주군 및 인접 시·군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 주도 및 자문역할 수행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공공건축 투어프로그램 운영
- 공공건축·경관·시설물디자인 시범사업
 - 청정자연지역으로서의 무주군 이미지에 부합된 생태건축, 흙건축, 친환경건축 개념을 공공건축에 적용(국토교통부 사업 연계)
- 공공도시디자인너 풀 운영
 - 공공건축 및 경관, 시설물디자인 관련 디자이너 인력관리 및 풀 운영